

# 韓전경련-日경단련 ‘미래 산업협력 강화 공동사업’ 구체화

日 도쿄 경단련회관 기자간담회  
미래파트너십 기금 진행상황 발표  
양 단체 회장, 공동운영위원장 맡아  
특정 기업 배제는 일절 없을 것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제단체연합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재단 설립  
까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파  
트너십 재단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다고 밝혔다.

미래파트너십 기금은 지난 3월 처음  
창설했다. 일제 강제 징용 배상을 위해  
양국 경제단체가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  
해 재단을 설립하는 등 계획을 담았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양단  
체가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양 단체 회  
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  
다.

운영위원회는 기금 공동 사업 실시  
방침과 사업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조직했다. 국내에서는 김윤 삼양  
홀딩스 회장 및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  
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일본 측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토 야

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과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을 선임했다. 일본 측 자문위원회 위원  
장으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  
치경제학술원 교수를 선임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양  
단체는 양국관계의 건전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  
한 길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 등에 조안을 얻기 위한 자문  
위원회도 함께 구성했다. 일본에서는 후  
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  
술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국내에서는 강  
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임명됐다.

경단련은 공동사업을 통해 양국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대학간 연계  
와 한국 고등학교 교원 일본 초빙, 인턴

십 등 젊은 인재간 교류를 예로 들었다.  
경제안전보장 환경 정비와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등과 관련한 연구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반도체와 자원  
등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오는 7월 6일 서울에서  
한일 산업협력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 교류 관련 공동 사업의 예  
시로는 양국 대학 간의 교류 강화, 한국  
고등학교 교원의 일본 초빙, 인턴십 등  
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산업협력 강화 관련 공동사업은 5가  
지로 정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우선 반도체 공급망 강화,  
자원·에너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경제  
안전보장 환경 정비에 나선다.

또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  
지·강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실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규제완화, 스  
타트업 협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산업  
진흥, 제3국 시장 협력) ▲전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과제 대응 등을 꼽았다.

도쿠라 회장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  
해 한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일본은 소부장  
분야 시장점유율이 높다”며 “일본의 장  
점인 소부장과 한국의 설계·양산이 있어  
야반도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분야  
에서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희귀자원 문제를 언급했  
다. 그는 “한일 모두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데 2차 전지 등에서 희귀자원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  
다”며 “희귀자원의 국유화 움직임에 공  
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운영위원

회를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며,  
한일 국민 간 상호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  
철의 기금 참여 여부에는 명확한 답변  
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행은 “이 기금은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기금”이라며 “전경련, 경단련  
이 만드는 기금의 운영에 대해 ‘미래적  
의미’를 많이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쿠라 회장은 “미쓰비시, 일본제철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거나 배제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다”며 “무차별적으로 끌고  
루 요청할 생각이 없고, 그 사업의 동참 여  
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는 회사가 많고, 참여 의  
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며 “앞으로 협력  
사업에 따라 요청할 생각이며, 이때 특  
정 기업이 꼭 참여해야 한다거나 특정  
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일절 없  
다”고 말했다.

전경련에서 탈퇴한 삼성, SK, 현대  
차, LG 4대 그룹의 기금 참여 여부는 아  
직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중견기업계, “글로벌 위기… 규제완화·금융지원 필요”

중견기업 경제 현안 간담회  
금융·수출지원 등 정책 노력 강조  
정보 공유·상황 변화에 빠른 대응도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마포 연합회 사무실에서 중견기업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3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견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환율·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탄소중  
립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포진한 중  
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정책 지  
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자  
동차, 기계 등 업종별 중견기업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경제 현  
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  
장과 SIMPAC, 유라코퍼레이션, 이랜  
텍, 고려제지, 고영테크놀러지, 능원금

속공업, 티맥스소프트, 코다코, 티에스  
이 등 업종별 주요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포스트 팬데믹(세계적 대유  
행) 시대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의 저변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수출 지원  
등 위기에 걸맞은 전향적 정책 노력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 대내

외 경제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  
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자금 검색, 규제 강화, 전기  
료 인상, 인력난 등 국내에서 겪는 고충  
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 변  
화에 따른 애로를 꼽았다.

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시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상황 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  
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견인하려면 업종별 특성을 세밀  
하게 반영한 규제 완화와 투자 세액 공  
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 SK매직 23l 올인원 광파 오븐 다기능 멀티 2종 출시

SK매직이 오븐 하나로 에어프라이,  
전자레인지, 그릴, 토스트 기능까지 이  
용 가능한 다기능 멀티 오븐 ‘23l 올인  
원 광파 오븐’ 2종을 출시했다.

10일 SK매직에 따르면 23l 올인원  
광파 오븐은 좁은 주방 공간을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in-1, 다기  
능 멀티 오븐이다. 크기는 가정용 전자  
레인지 수준이지만 23l 의 조리 공간을  
제공한다. 에어프라이, 광파오븐, 광파  
그릴 등 총 45종의 자동요리를 지원해  
각 메뉴별 맞춤 버튼을 설정하기만 하  
면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 한진, 韓 패션기업 글로벌 도약 돕는다

2024년 1월까지 서비스·정보 제공  
마이페어와 해외 박람회 참가 서비스

한진이 해외 박람회 부스 예약 플랫폼  
마이페어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10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  
우수한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SWOOP(숲)’을 런  
칭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패션기업에  
게 물류 및 마케팅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24년 1월까지 해외 박람회 참여  
를 희망하는 국내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한진은 마이페어의 고객사를 대상으  
로 패션 및 전시에 특화된 국제물류 서  
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글로벌 셀러 대  
상으로 운영 중인 해외배송 서비스 ‘글  
로벌 원클릭’을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  
한다. 또한, ‘SWOOP(숲)’ 홈페이지 회  
원을 대상으로 마이페어의 서비스를 흥  
보한다. /김승호 기자

## 中企, 5년간 ‘스타트업 1000곳’ 육성

2조원 규모 사업화·R&D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5년간 초격  
차 스타트업 1000곳을 선정해 전폭적으  
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팀스타운 팀스홀  
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격차 스타트  
업 대표, 전문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  
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  
년을 맞아 중기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  
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

벤처 집중육성’ 국정과제와 관련해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날 출정식에 참여한 초격차 스타  
트업은 비전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은 글  
로블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  
트’는 신청 기업에 대해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평  
가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  
격차 팀테크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  
한다.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사업장 경쟁력 강화 대규모 채용·투자 나서

HD현대인프라코어가 인천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채용과  
투자에 나선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7일 인하대학교 2호관에서 인하대와  
함께하는 ‘IN x IN DAY’를 진행한단  
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HD현대  
인프라코어 본사가 위치한 인천 소재 대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을 유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중대  
형 엔진 생산공장을 2024년까지 총 400  
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전자식 엔진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한다. /양성운 기자 ysw@